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을 위한 농업인 인식조사 결과 분석

김기흥, 이도경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kimkh@cni.re.kr (김기흥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서산시의 농업을 둘러싼 관련 현황과 여건을 살펴보고, 서산시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지원 사업 및 농촌 여건 등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서산시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서산시 농업 관련 현황
3. 서산시 농업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
4. 결론 및 제언

요약

- 서산시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 서산시의 농가수 및 농업인구 감소율은 지난 5년간 전국 및 충남 감소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2015년 50대 이상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는 등 향후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산시 농업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
 - 농업경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농산물 가격, 판로와 유통 등 농업 소득과 관련한 부분이었으며, 농정일반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있는 농정이슈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후변화, 농민수당, 직불제 개편으로 나타남.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주요 역할로는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지도는 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산시 농정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 서산시에서 가능한 농가 소득 지원으로는 서산형 농민수당 지원을 들 수 있으며,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마을의 고령화를 둘러싼 농지문제, 인력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마을 단위 논의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서 주도하도록 하여 농민을 포함하는 농촌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총괄적이고도 장기적인 시야를 바탕으로 서산시만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서산형 3농 혁신 구체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0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서산시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에 대응하고 서산시의 농업농촌 혁신발전을 위해 2019년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참여예산워크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옴
-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한 설문조사는 있었으나, 대다수가 농업인구, 농업소득 등 단순 통계를 위한 서면조사에 그치고 있고 조사 주체가 통계청이나 농촌연구원 등으로 조사 표본이 전국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산시만의 특화된 조사가 미흡한 상황이었음
- 이에 서산시 실정에 맞는 농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 분석을 통하여 서산시 농정을 보완하고 서산시만의 3농 혁신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서산시의 농업을 둘러싼 관련 현황과 여건을 살펴보고, 서산시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지원 사업 및 농촌 여건 등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서산시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02

서산시 농업 관련 현황

1. 서산시 농업 관련 현황

● 서산시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 서산시 농가수는 지난 5년 사이 연간 6.1%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같은 기간 8.1%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농가수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과 충남의 감소율인 1.9%와 2.4%, 농업인구의 경우 전국과 충남의 감소율인 3.3%와 3.9%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충남 전체 지역과 비교하면 서산시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9.3%에서 2019년 7.9%로 줄었으며 농업인구는 같은 기간 9.2%에서 7.7%로 감소하였음

[표 1] 충청남도 서산시 농가수, 농업인구 추이(5개년)

단위 : 가구, 명, %

구분		2015 (a)	2016	2017	2018	2019 (b)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농가수	1,088,518	1,068,274	1,042,017	1,020,838	1,007,158	△1.9
	농업인구	2,569,387	2,496,406	2,422,256	2,314,982	2,244,783	△3.3
충남	농가수	132,008	128,275	125,886	123,480	119,903	△2.4
	농업인구	308,455	296,801	288,800	276,426	263,124	△3.9
서산시	농가수	12,229	11,677	10,319	9,833	9,510	△6.1
	충남 대비	9.3%	9.1%	8.2%	8.0%	7.9%	
	농업인구	28,243	26,822	22,925	21,375	20,173	△8.1
	충남 대비	9.2%	9.0%	7.9%	7.7%	7.7%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농가인구

● 경지면적 현황

- 서산시의 경지면적은 논밭 전체는 26,151ha로 충청남도(210,428ha) 대비 12.4%를 차지함
- 전체 경지면적 가운데 논밭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논이 비율이 전체 경지면적의 5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충청남도의 논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68.3%를 보이고 있고, 서산시의 경우는 그보다도 높은 수준인 77.7%를 나타내고 있음

[표 2] 충청남도 서산시 경지면적 (2019년)

단위 :ha, %

구분	경지면적(ha)		
	합계	논	밭
전국	1,580,957	829,778(52.5%)	751,179(47.5%)
충청남도	210,428	145,785(68.3%)	64,644(31.7%)
서산시	26,151	20,309(77.7%)	5,842(22.3%)
(충남 대비)	12.4%	13.9%	9.0%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시군별 논밭별 경지면적

● 경영주 연령별 농가 현황

- 서산시의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율은 2015년 50대 이상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고 있고 만 49세까지인 40대 이하가 전체의 7.3%에 그치고 있음
- 서산시 농가의 평균 연령은 66.4세로 충청남도 전체의 평균 연령 65.8세 보다 0.6세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충남의 경우 만 65~69세 비율이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전 구간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서산시도 65~69세 비율이 전체의 16.3%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

[표 3] 충청남도 서산시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가구, %

연령(만)	충남	서산시
20-24세	12(0.0)	1(0.0)
25-29세	77(0.1)	3(0.0)
30-34세	391(0.3)	28(0.2)
35-39세	1,061(0.8)	102(0.8)
40-44세	3,060(2.3)	238(1.9)
45-49세	5,753(4.4)	520(4.3)
50-54세	11,018(8.3)	1,025(8.4)
55-59세	17,432(13.2)	1,444(11.8)
60-64세	19,204(14.5)	1,677(13.7)
65-69세	21,158(16.0)	1,989(16.3)
70-74세	20,128(15.2)	1,981(16.2)
75-79세	19,301(14.6)	1,862(15.2)
80세 이상	13,413(10.2)	1,359(11.1)
합계	132,008(100.0)	12,229(100.0)
평균 연령(세)	65.8	66.4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 경작규모별 농가 현황

- 서산시의 경작규모별 농가의 비율은 2015년 경작규모 0.1ha 미만이 1.1%, 경작규모 0.1ha이상 1.0ha 이하 농가가 전체의 52.7%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작규모는 0.3~0.5ha로 충남 전체의 15.7%에 해당되는 반면, 서산시는 경작규모 1.0~1.5ha가 전체의 1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충남에 비해 규모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서산시의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는 전체의 45.8%로 이는 충청남도 전체에서 경작규모 1.0ha 이상의 농가 비율이 37.8%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며 대부분 논(전) 농업을 통해 규모화·기계화 된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4] 충청남도 서산시 경작규모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ha/가구, %

경지규모별	충남	서산시
경지없음	1,183(0.9)	48(0.4)
0.1ha 미만	2,367(1.8)	136(1.1)
0.1~0.2	15,025(11.4)	1,086(8.9)
0.2~0.3	10,427(7.9)	846(6.9)
0.3~0.5	20,674(15.7)	1,669(13.6)
0.5~0.7	15,241(11.5)	1,247(10.2)
0.7~1.0	17,253(13.1)	1,592(13.0)
1.0~1.5	16,690(12.6)	1,774(14.5)
1.5~2.0	10,301(7.8)	1,070(8.7)
2.0~2.5	5,469(4.1)	649(5.3)
2.5~3.0	3,936(3.0)	405(3.3)
3.0~4.0	4,849(3.7)	580(4.7)
4.0~5.0	2,495(1.9)	297(2.4)
5.0~6.0	1,535(1.2)	180(1.5)
6.0~7.0	1,321(1.0)	157(1.3)
7.0~10.0	1,626(1.2)	238(1.9)
10.0ha 이상	1,616(1.2)	255(2.1)
합계	132,008(100.0)	12,229(100.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지규모별 농가 및 경지면적

● 서산시 청년 현황

- 서산시의 18~34세 청년인구는 2019년 현재 33,532명으로 충청남도 청년인구 대비 8.0% 차지하고 있음
- 충남 청년인구 전체 가운데는 천안시가 160,562명(38.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산시 64,818명(15.5%)로 나타났고 서산시가 세 번째인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산시 청년 비율은 충청남도 전체 인구 대비로는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서산시 청년인구 현황(2019)

단위 : 명, %

구분	계		남		여	
	인구수 (18~34세)	도 전체 인구 대비 (도 청년 인구 대비)	인구수	성별	인구수	성별
합계	418,868	19.7%(100%)	227,275	54.3%	191,593	45.7%
천안시	160,562	7.6%(38.3%)	84,179	52.4%	76,383	47.6%
공주시	19,110	0.9%(4.6%)	10,455	54.7%	8,655	45.3%

보령시	16,320	0.8%(3.9%)	9,205	56.4%	7,115	43.6%
아산시	64,818	3.1%(15.5%)	34,960	53.9%	29,858	46.1%
서산시	33,532	1.6%(8.0%)	19,098	57.0%	14,434	43.0%
논산시	19,773	0.9%(4.7%)	10,820	54.7%	8,953	45.3%
계룡시	8,263	0.4%(2.0%)	4,424	53.5%	3,839	46.5%
당진시	30,854	1.5%(7.4%)	17,566	56.9%	13,288	43.1%
금산군	7,064	0.3%(1.7%)	3,925	55.6%	3,139	44.4%
부여군	9,373	0.4%(2.2%)	5,240	55.9%	4,133	44.1%
서천군	6,779	0.3%(1.6%)	3,866	57.0%	2,913	43.0%
청양군	4,574	0.2%(1.1%)	2,574	56.3%	2,000	43.7%
홍성군	17,133	0.8%(4.1%)	9,244	54.0%	7,889	46.0%
예산군	11,734	0.6%(2.8%)	6,555	55.9%	5,179	44.1%
태안군	8,979	0.4%(2.1%)	5,164	57.5%	3,815	42.5%
충청남도 (전체인구)	2,125,349		1,082,259		1,043,090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2019. 7.)

● 서산시 청년 농업인 현황

- 서산시 청년 농업인 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정보에 의하면 2019년 514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25세 미만이 25명, 25~29세 76명, 30~34세 121명, 35~39세 292명으로 집계되었음.
- 연도별로는 2015년에 840명이던 것이 2016년 734명, 2017년 562명, 2018년 544명을 거쳐 2019년에는 514명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 326명이 줄어들어, 같은 기간 약 38.8%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표 6] 서산시 청년 농업인 현황(2015~2019)

단위 : 명

구분		합계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19	합계	6,965	382	900	1,823	3,860
	천안시	603	30	74	155	344
	공주시	522	46	63	147	266
	보령시	501	37	60	130	274
	아산시	413	26	63	126	198
	서산시	514	25	76	121	292
	논산시	738	33	89	210	406
	계룡시	40	1	2	7	30
	당진시	471	25	59	112	275
	금산군	458	23	59	140	236
	부여군	676	35	106	161	374
	서천군	342	14	39	85	204
	청양군	338	21	45	95	177
	홍성군	557	24	72	140	321

	예산군	485	32	63	115	275
	태안군	307	10	30	79	188
'18	합계	7,284	370	921	1,926	4,067
	천안시	567	20	64	136	347
	공주시	582	40	67	162	313
	보령시	475	35	51	133	256
	아산시	446	25	55	136	230
	서산시	544	24	70	118	332
	논산시	793	30	106	226	431
	계룡시	46	0	1	12	33
	당진시	517	25	71	133	288
	금산군	483	25	67	134	257
	부여군	710	37	109	197	367
	서천군	349	10	33	93	213
	청양군	366	30	48	99	189
	홍성군	568	27	71	141	329
	예산군	493	28	71	122	272
	태안군	345	14	37	84	210
'17	합계	7,595	344	981	2,101	4,169
	천안시	594	19	65	154	356
	공주시	632	31	88	165	348
	보령시	467	35	58	127	247
	아산시	430	17	44	136	233
	서산시	562	31	68	135	328
	논산시	839	30	116	261	432
	계룡시	50	0	3	13	34
	당진시	561	30	71	162	298
	금산군	525	23	85	138	279
	부여군	729	37	108	204	380
	서천군	341	11	34	87	209
	청양군	386	21	54	119	192
	홍성군	602	23	66	166	347
	예산군	516	23	76	138	279
	태안군	361	13	45	96	207
'16	합계	9,144	426	1,247	2,673	4,798
	천안시	669	20	77	194	378
	공주시	771	39	129	210	393
	보령시	653	34	90	208	321
	아산시	428	11	54	133	230
	서산시	734	47	81	177	429
	논산시	933	55	127	285	466
	계룡시	46	0	6	13	27
	당진시	777	34	106	234	403
	금산군	624	28	98	193	305
	부여군	825	37	126	242	420
	서천군	383	14	45	123	201
	청양군	467	23	72	139	233
	홍성군	705	31	93	200	381
	예산군	674	31	97	190	356
	태안군	455	22	46	132	255
'15	합계	9,846	465	1,377	2,928	5,076
	천안시	806	21	94	250	441

	공주시	993	58	167	300	468
	보령시	738	51	115	223	349
	아산시	469	8	65	143	253
	서산시	840	49	96	221	474
	논산시	967	52	126	298	491
	계룡시	54	0	7	13	34
	당진시	910	44	124	287	455
	금산군	676	28	119	213	316
	부여군	888	49	127	256	456
	서천군	486	19	61	155	251
	청양군	487	21	77	141	248
	홍성군	778	29	105	214	430
	예산군	754	36	94	214	410
	태안군	529	29	53	155	292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Agrix), 농업경영체 현황, 지역별 농업인 현황

● 서산시 귀농·귀촌 현황

- 서산시의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귀농인 수는 96명으로 2014년 대비 0.2%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원을 포함한 귀촌인 수는 4,056명으로 2014년 대비 4.3% 증가하였음¹⁾
- 귀농인 수는 2019년 96명으로 전년도 2018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귀촌인 수는 전년도인 2018년 5,298명에 비하면 2019년은 4,056명으로 약 2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서산시 귀농·귀촌 인구 추이

단위: 명

구 분		'14년(A)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B)	증감 (B-A)
전 국	귀농·귀촌인구	450,439	478,892	488,508	509,950	484,529	455,968	0.2%
	귀농인구	10,904	12,114	13,019	12,763	12,055	11,504	1.1%
	귀촌인구	439,535	466,778	475,489	497,187	472,474	444,464	0.2%
충 남	귀농·귀촌인구	47,725	49,832	52,185	50,177	48,297	46,081	△0.7%
	귀농인구	1,226	1,390	1,438	1,405	1,328	1,268	0.7%
	귀촌인구	46,499	48,442	50,747	48,772	46,969	44,813	△0.7%
서 산 시	귀농·귀촌인구	3,384	4,256	4,397	3,752	5,394	4,152	4.2%
	귀농가구원수	150	194	179	150	151	129	-
	귀농인수	95	116	103	105	96	96	0.2%
	귀농 동반가구원수	55	78	76	45	55	33	-
	귀촌인수	3,289	4,140	4,294	3,647	5,298	4,056	4.3%
	귀촌가구주수	2,368	2,837	2,845	2,608	3,471	2,894	-
	귀촌 동반가구원수	921	1,303	1,449	1,039	1,827	1,162	-

자료 : 통계청 Kosis, 시도별(시군별)·연령별 귀농가구원/시도별(시군별)·연령별 귀촌인

1) 귀농귀촌 정의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2월 23일 시행, 이하 귀농어귀촌법)하면서 기존의 귀농과 귀촌 정의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이외에 농촌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를 '귀촌인'으로 정하고 있다.

● 서산시 친환경농업 관련 현황

- 서산시의 친환경농업 관련 현황으로는 2019년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합한 총 인증 건수는 89건이었고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이 16건, 무농약농산물이 73건으로 나타났음
- 농가수별로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123호 가운데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가 36호, 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가 87농가로 나타남
- 면적별로는 서산시 전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169ha 가운데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은 86ha, 무농약농산물 인증 면적은 83ha로 나타남
- 서산시의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으로는 전체 894톤 가운데 유기농산물이 139톤, 무농약농산물이 755톤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서산시 친환경농업 관련 현황(2019)

단위: 건, 호, ha, 톤

시군구	구분	계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충청남도	건수(건)	1,859	515	1,344
	농가수(호)	4,272	2,022	2,250
	면적(ha)	5,203.53	2,979.16	2,224.37
	출하량(톤)	43,103.16	14,917.24	28,185.92
보령시	건수(건)	89	18	71
	농가수(호)	159	68	91
	면적(ha)	185	114	70
	출하량(톤)	996	258	738
금산군	건수(건)	157	43	114
	농가수(호)	157	43	114
	면적(ha)	60	18	42
	출하량(톤)	794	271	523
논산시	건수(건)	210	43	167
	농가수(호)	220	50	170
	면적(ha)	292	60	231
	출하량(톤)	3,045	687	2,358
당진시	건수(건)	84	19	65
	농가수(호)	111	19	92
	면적(ha)	173	30	144
	출하량(톤)	2,813	315	2,498
계룡시	건수(건)	7	2	5
	농가수(호)	7	2	5
	면적(ha)	0	0	0
	출하량(톤)	16	3	13

부여군	건수(건)	257	67	190
	농가수(호)	418	189	229
	면적(ha)	618	359	258
	출하량(톤)	5,342	1,458	3,884
서산시	건수(건)	89	16	73
	농가수(호)	123	36	87
	면적(ha)	169	86	83
	출하량(톤)	894	139	755
서천군	건수(건)	77	5	72
	농가수(호)	543	51	492
	면적(ha)	612	113	499
	출하량(톤)	3,217	317	2,901
아산시	건수(건)	172	67	105
	농가수(호)	605	430	175
	면적(ha)	595	466	129
	출하량(톤)	7,662	4,220	3,442
예산군	건수(건)	71	9	62
	농가수(호)	188	50	138
	면적(ha)	242	116	127
	출하량(톤)	792	309	483
천안시	건수(건)	171	23	148
	농가수(호)	353	174	179
	면적(ha)	369	217	152
	출하량(톤)	7,944	549	7,395
청양군	건수(건)	144	39	105
	농가수(호)	402	200	202
	면적(ha)	651	475	176
	출하량(톤)	1,424	673	751
태안군	건수(건)	108	72	36
	농가수(호)	108	72	36
	면적(ha)	46	22	24
	출하량(톤)	308	164	144
홍성군	건수(건)	120	47	73
	농가수(호)	651	516	135
	면적(ha)	623	530	93
	출하량(톤)	5,928	4,969	959
공주시	건수(건)	103	45	58
	농가수(호)	227	122	105
	면적(ha)	567	372	194
	출하량(톤)	1,929	586	1,343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친환경인증통계정보

03

서산시 농업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본 설문조사는 충남 서산시 농업인의 농업지원 사업 및 농촌 여건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서산시 농업·농촌의 혁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됨
 - 우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다음으로 서산시 농업·농촌 지원정책 도출과 관련한 농업인의 영농 현황 파악 및 경영애로사항, 희망시책 등에 대한 농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2) 조사개요

- 충남 서산시 내 농업인 630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개요 및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응답한 설문지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315개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빈도분석(analysis of frequency)을 진행하였음

[표 5]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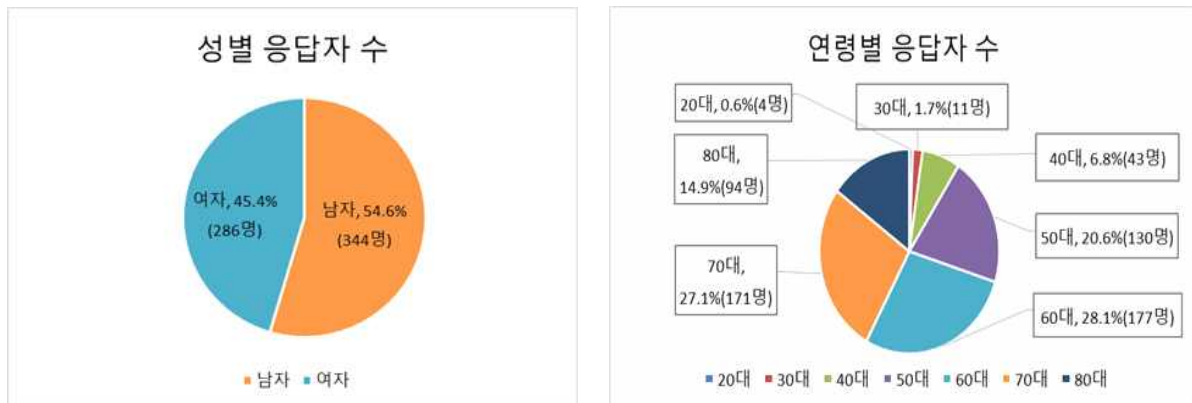
조사목적	충남 서산시 농업인의 농업지원 사업과 농촌 여건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서산시 농업·농촌의 혁신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사를 실시함
조사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전역
표본크기	630개 경영체
자료수집방법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조사대상자	서산시 내 농업인
조사기간	2020. 05. 03. ~ 2020. 05. 17. (14일간)

2. 설문조사 결과

1) 충남 농업인 설문대상자 일반 현황

● 성별

- 성별로는 남자 응답자가 344명으로 54.6%, 여자가 286명으로 45.4%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60대가 28.1%(177명)로 가장 많았고, 70대 27.1%(171명), 50대 20.6%(130명) 순이었음



[그림 1] 성별 · 연령별 응답자 수

● 거주지별

- 서산시 14개 읍면 거주지별로는 서산시 부석면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0.3%로 가장 많았고, 동문동(7%), 음암면(8.6%), 대산읍(8.4%), 석남동(8.4%)의 순이었음



[그림 2] 거주지별 응답자 수

● 농업경영

- 응답자의 농업경영 형태는 전업농이 81.9%(516명)로 대부분이었고, 겸업농이 18.1%(114명)로 나타남
- 응답자의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세대원 수는 본인 포함하여 2명이 66.8%(421명)로 가장 많았고, 1명 20.8%(131명)였으며 4명 이상도 12.4%(78명)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 농업경영 형태 및 참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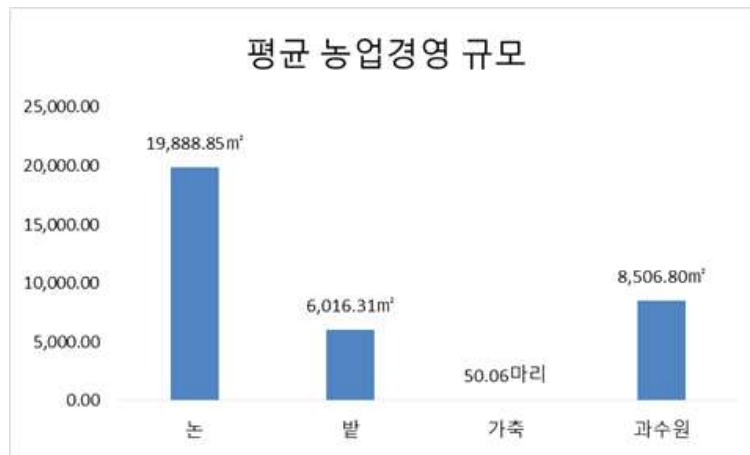
- 응답자의 영농 경력은 4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44.8%(231명)이었고, 21년~40년 이하 23.1%(119명), 20년 이하 32.2%(166명) 순이었음
- 농업경영 작목으로는 시설원예가 42.1%로 가장 많았고, 축산·과수·특작·조경수가 28.4%, 수도작이 26%, 노지채소가 3.5% 순이었음



[그림 4] 영농경력 및 농업경영 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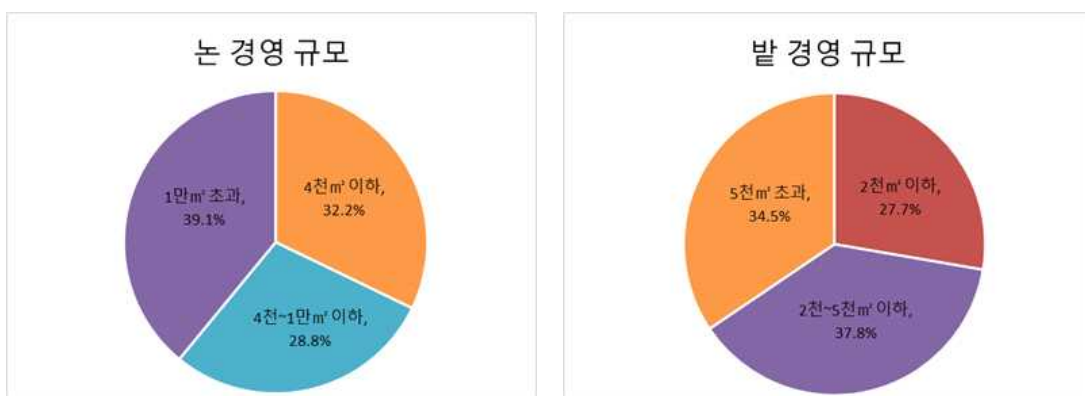
● 농업경영 규모

- 응답자의 평균 농업경영 규모는 논이 19,888.85m², 밭이 6,016.31m², 가축사육이 50.06마리, 과수원이 8,506.80m²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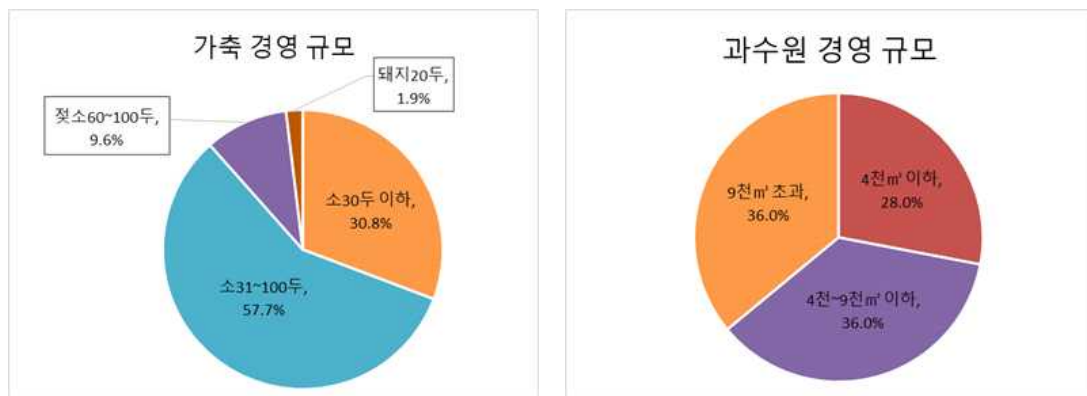
[그림 5] 응답자의 평균 농업경영 규모

- 논을 경영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1만m² 초과 논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39.1%, 4천m² 이하가 32.2%, 4천~1만m² 이하가 28.8%로 나타남
- 밭을 경영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2천~5천m² 이하의 밭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37.8%, 5천m² 초과가 34.5%, 2천m² 이하 27.7%로 나타남



[그림 6] 응답자의 논·밭 경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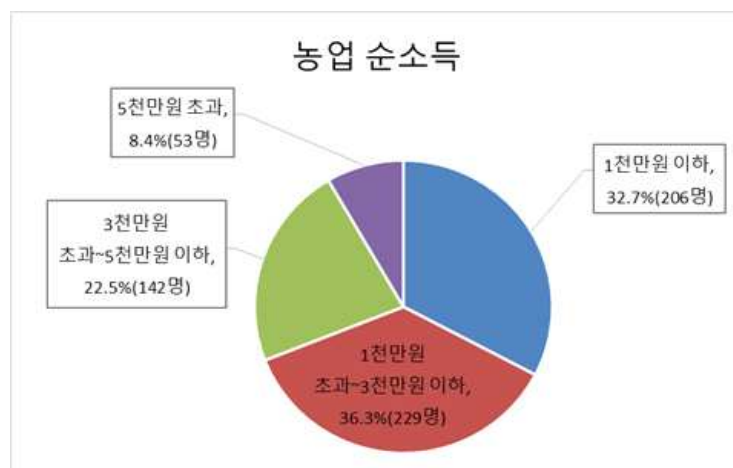
-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소를 사육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 31~100두가 57.7%로 가장 많았고 소 30두 이하가 30.8%, 젖소 60~100두는 9.6%, 돼지 20두는 1.9% 순이었음
-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4천~9천㎡ 이하와 9천㎡ 초과가 36%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4천㎡ 이하가 28%로 비교적 대규모의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응답자의 가축·과수원 경영 규모

● 순소득

- 응답자의 연평균 순소득은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가 36.3%로 가장 많았고, 1천만 원 이하가 32.7%,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는 22.5%, 5천만 원 초과가 8.4%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응답자의 연평균 순소득

2) 농업경영

● 농업경영 관련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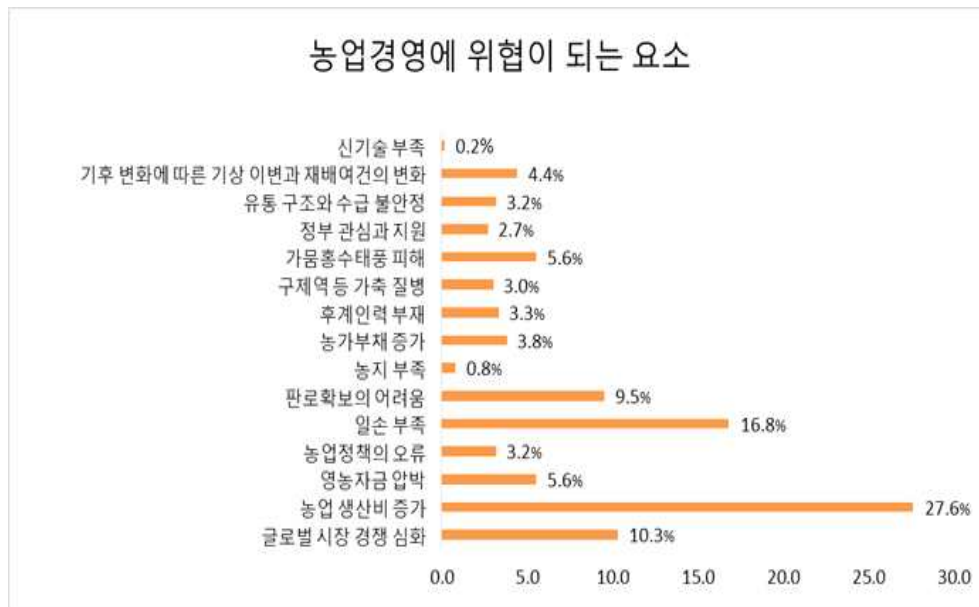
- 농업경영과 관련한 서산시 농업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농산물 가격(39.2%), 판로와 유통(14.8%), 농작물 병충해·기상조건·가축질병(10.2%) 순이었음



[그림 9] 농업경영 관련 관심사

● 농업경영 관련 위협요소

- 서산시 농업인이 느끼는 농업경영과 관련한 위협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27.6%)가 가장 높았고, 일손 부족(16.8%),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10.3%), 판로확보의 어려움(9.5%) 순이었음



[그림 10] 농업경영에 위협이 되는 요소

● 현재 생활에 관한 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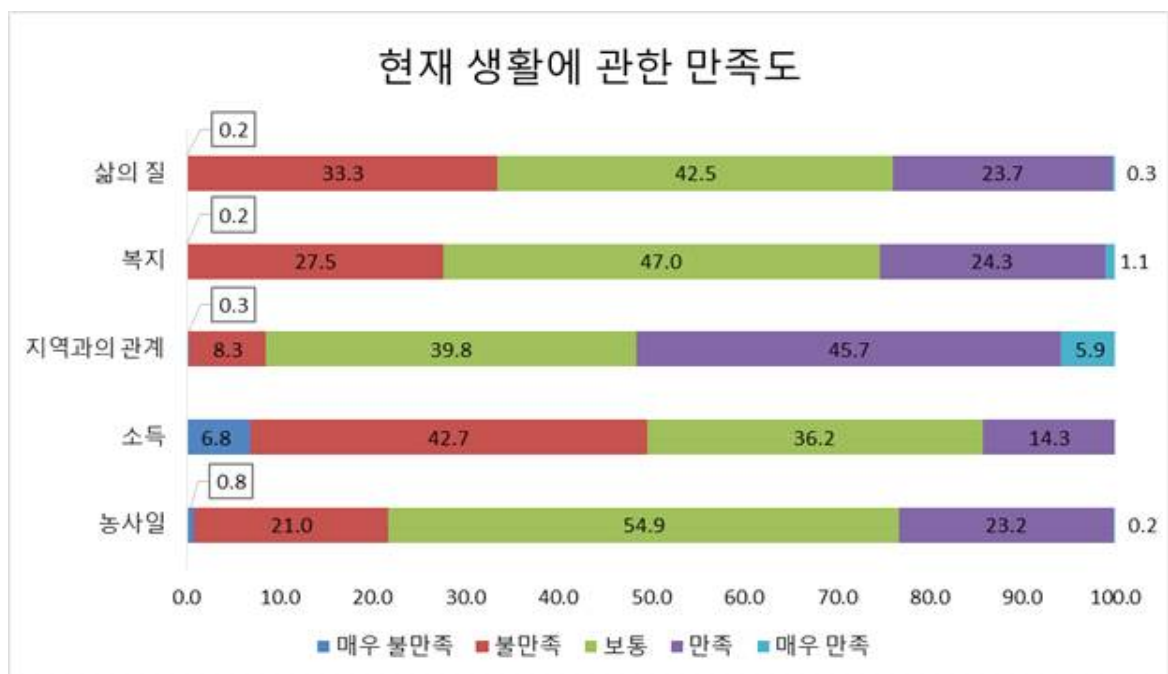
- 서산시 농업인의 현재 생활 만족도에 관한 평균점수(5점 만점)는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사일에 대한 만족도 3.01점, 복지에 대한 만족도 2.99점, 삶의 질에 관한 만족도 2.91점, 소득에 대한 만족도 2.58점 순이었음



[그림 11] 현재생활 만족도 평균점수

- 삶의 질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42.5%), 불만족(33.3%), 만족(23.7%) 순이었음
- 복지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47%), 불만족(27.5%), 만족(24.3%), 매우만족(1.1%)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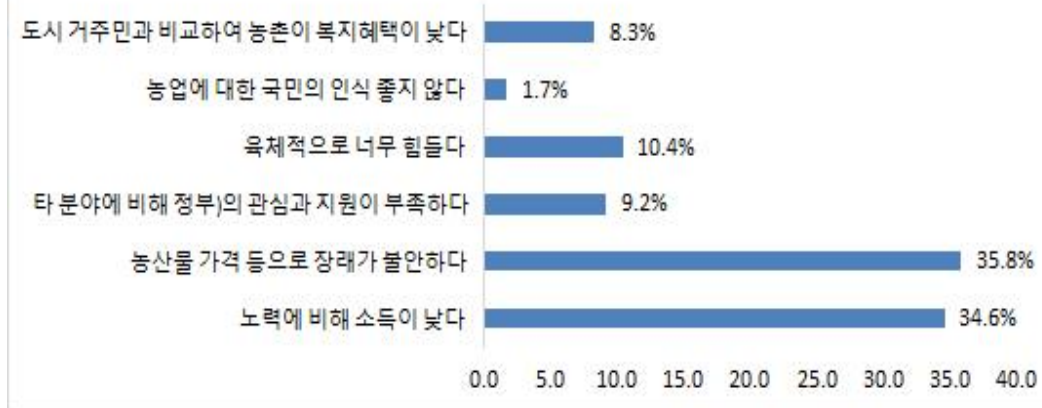
-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45.7%), 보통(39.8%), 불만족(27.5%), 매우만족(5.9%) 순이었음
- 소득에 대한 만족 정도는 불만족(42.7%), 보통(36.2%), 만족(14.3%), 매우 불만족(6.8%) 순이었음
- 농사일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54.9%), 만족(23.2%), 불만족(21%), 매우 불만족(0.8%) 순이었음



[그림 12] 현재 생활에 관한 만족도

- [그림 13]의 현재 생활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자 중 이유를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35.8%),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34.6%),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0.4%) 순이었음

현재생활에 관한 불만족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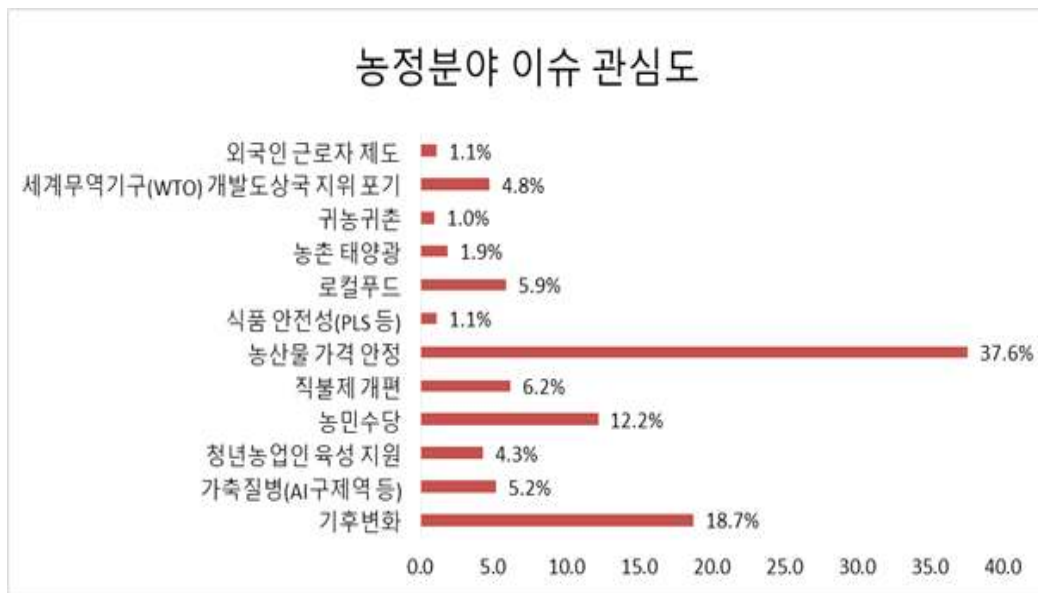


[그림 13] 현재생활에 관한 불만족의 이유

3) 농정일반

● 농정분야 이슈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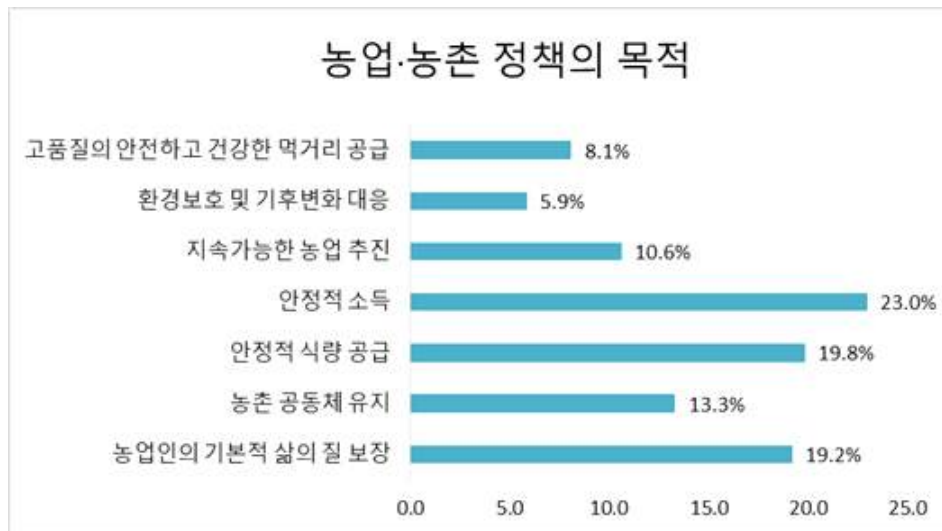
- 최근 농정분야 이슈 중 서산시 농업인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농산물 가격 안정(37.6%), 기후변화(18.7%), 농민수당(12.2%), 직불제 개편(6.2%) 순이었음



[그림 14] 농정분야 이슈 관심도

● 농업·농촌 정책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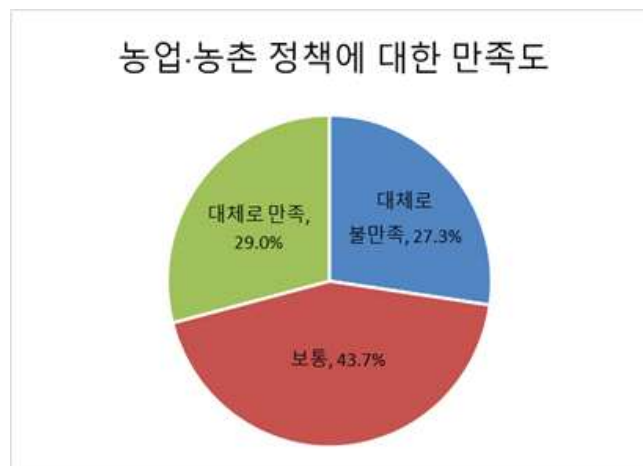
- 서산시 농업인이 생각하는 농업·농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안정적 소득(23%), 안정적 식량 공급(19.8%), 농업인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19.2%), 농촌 공동체 유지(13.3%),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10.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5] 농업·농촌 정책의 목적

●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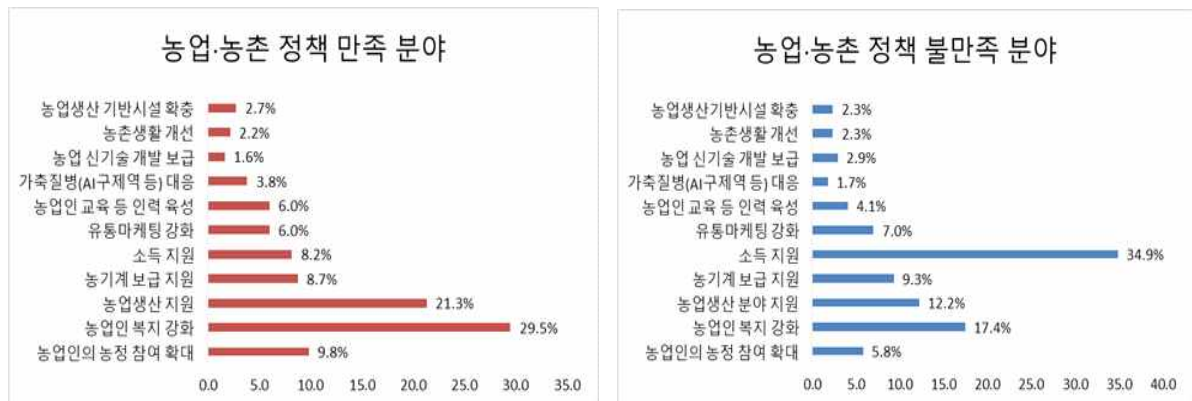
- 현재 민선7기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서산시 농업인의 만족도는 평균점수(5점 만점) 3.02점을 나타냈고, 보통(43.7%), 대체로 만족(29%), 대체로 불만족(27.3%) 순이었음



[그림 16]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

- 민선7기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응답자(183명)는 농업인 복지 강화(29.5%), 농업생산 지원(21.3%), 농업인의 농정 참여 확대(9.8%) 분야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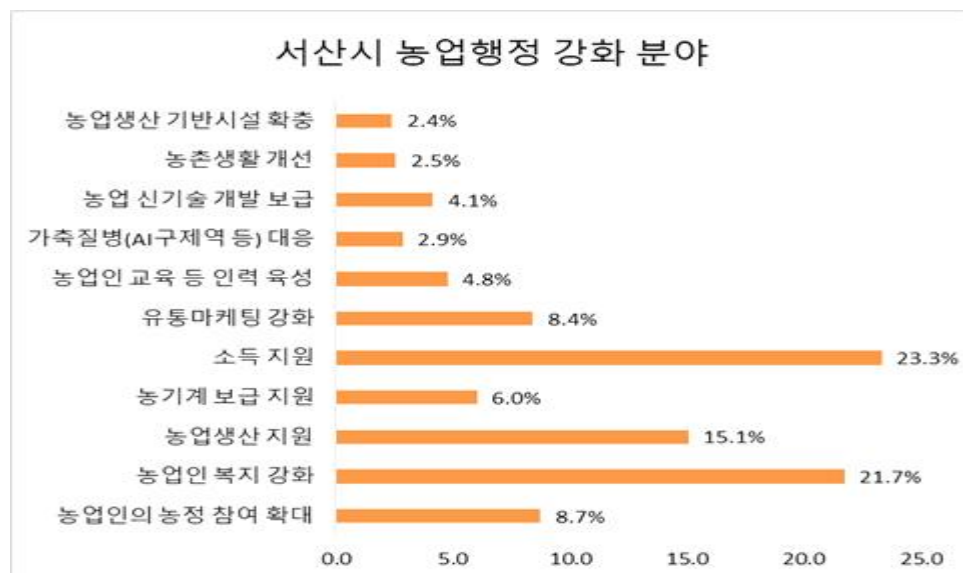
- 민선7기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불만족하다고 대답한 응답자(172명)는 소득 지원(34.9%), 농업인 복지 강화(17.4%), 농업생산 분야 지원(12.2%) 분야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농업·농촌 정책 만족·불만족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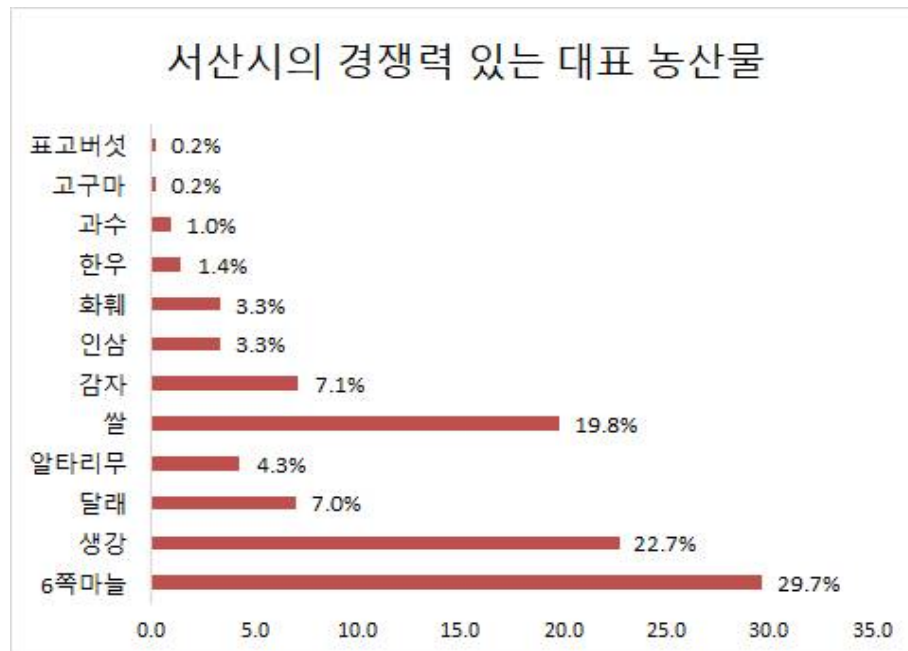
● 서산시 농업행정 강화 분야

- 서산시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서산시 농업행정에서 강화(인력보강 및 예산 증액 등)되어야 할 분야는 소득 지원(23.3%), 농업인 복지 강화(21.7%), 농업생산 지원(15.1%), 농업인의 농정 참여 확대(8.7%), 유통마케팅 강화(8.4%) 순으로 나타남



[그림 18] 서산시 농업행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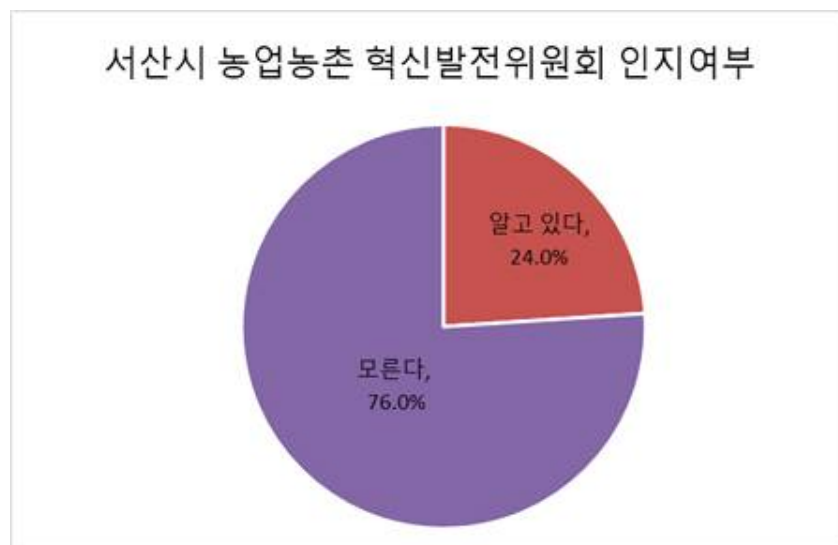
- 서산시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서산시의 대외적 경쟁력 있는 대표 농산물로는 6쪽마늘이 29.7%로 가장 높았고, 생강(22.7%), 쌀(19.8%), 감자(7.1%), 달래(7%) 순이었음



[그림 19] 서산시의 경쟁력 있는 대표 농산물

4)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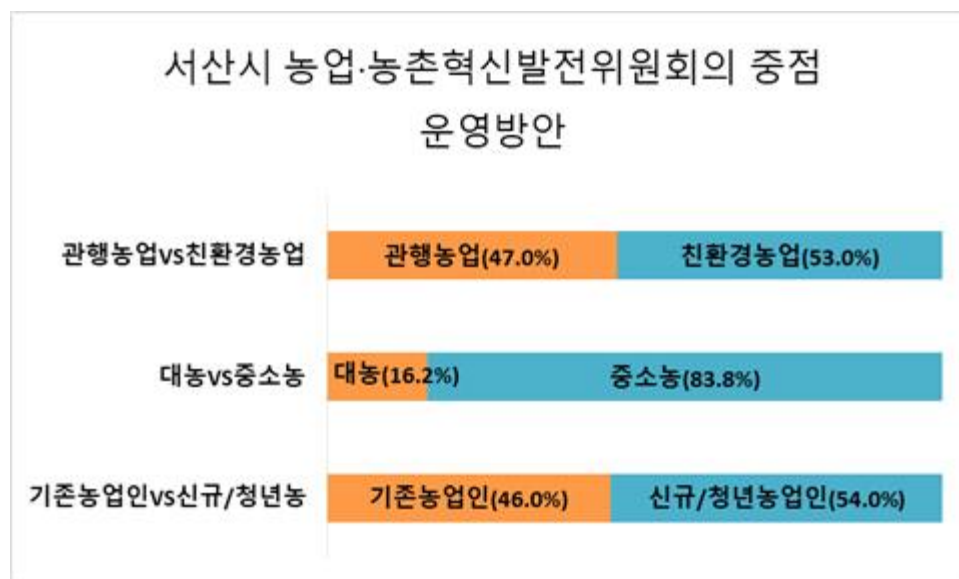
- 서산형 3농혁신 추진을 위한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운영
 - 민선7기 서산시에서는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서산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서산형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서산형 3농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준비단이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지난해 7월 5일 출범함
 - 현재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는 농업인, 농업기관단체, 시민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총 6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농업인이 농업시책을 직접 평가하는 등 그동안 관(官) 주도로 추진하던 농업정책 등을 농업인이 주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고 있음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인지 여부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 대한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인지도는 모른다가 76%, 알고 있다가 24%로 대부분의 농민이 농업인 참여 예산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0]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인지 여부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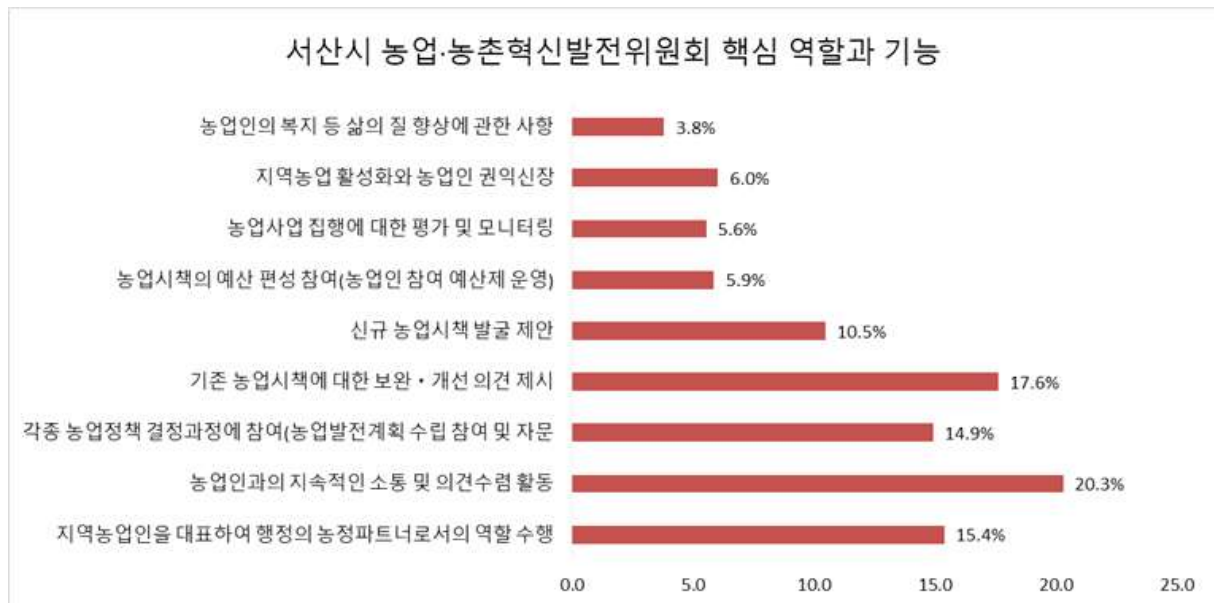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중점 운영방안 가운데 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우선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가운데는 친환경농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 관행농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나타남
- 다음으로 대농과 중소농 가운데는 중소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8%로 대농 16.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기존농업인과 신규·청년농업인 가운데는 신규·청년농업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기존농업인 46%에 비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1]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중점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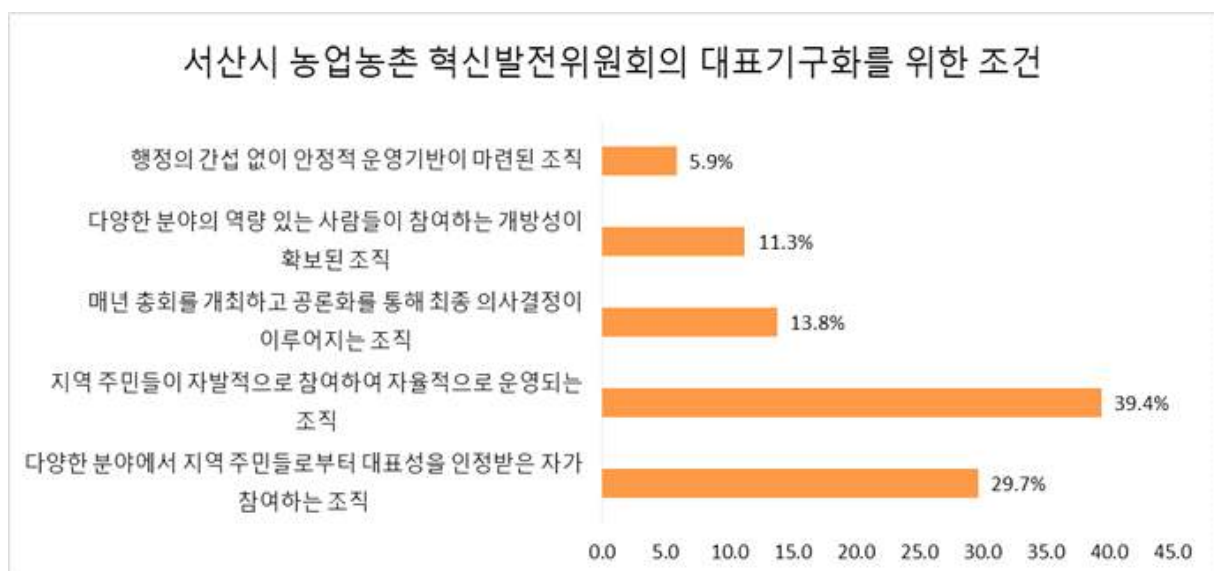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핵심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서산시 농업인들의 생각은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활동(20.3%)’, ‘기존 농업정책에 대한 보완·개선 의견 제시(17.6%)’, ‘지역농업인을 대표하여 행정의 농정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15.4%)’, ‘각종 농업정책 결정과정에 참여(농업발전계획 수립 참여 및 자문)(14.9%)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핵심 역할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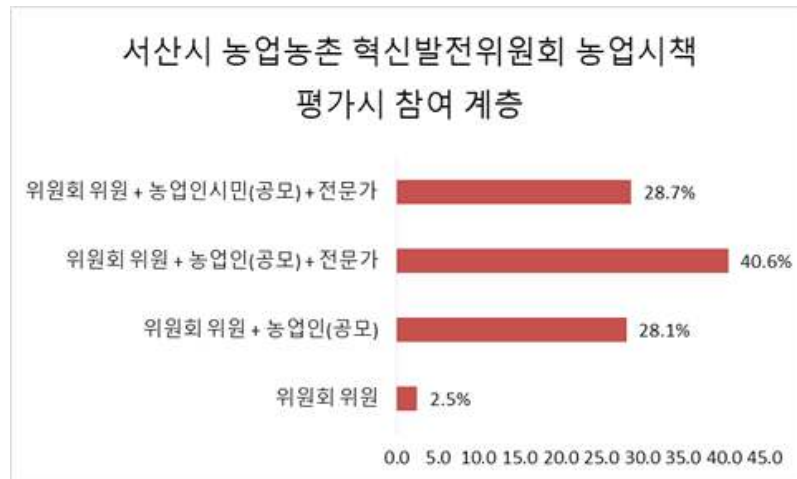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지역 농업인의 대표기구로서 활성화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39.4%)’, ‘농업·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은 자가 참여하는 조직(29.7%)’,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공론화를 통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사업방향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13.8%)’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대표기구화를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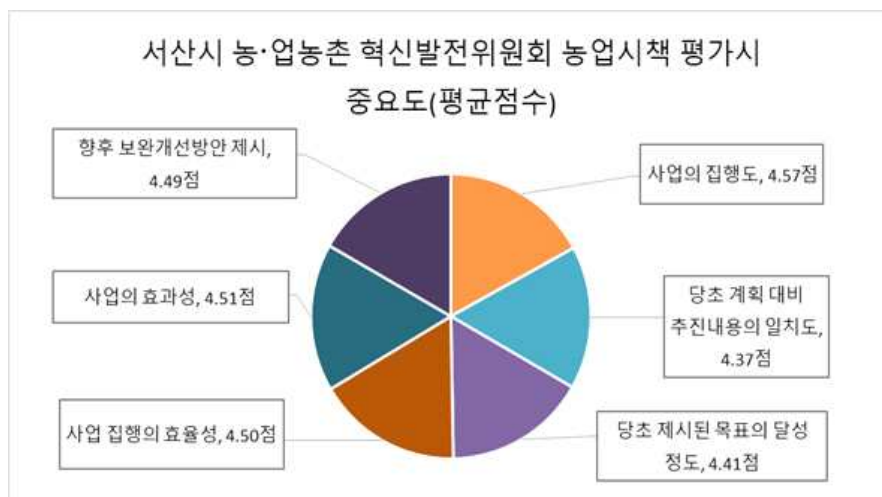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농업시책 평가 방안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농업시책 평가 시 참여하여 평가해야 할 계층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 농업인(공모) + 전문가(40.6%)’, ‘위원회 위원 + 농업인시민(공모) + 전문가(28.7%)’, ‘위원회 위원 + 농업인(공모)(28.1%)’ 순으로 나타나 위원회 위원은 물론 공모를 통한 농업인과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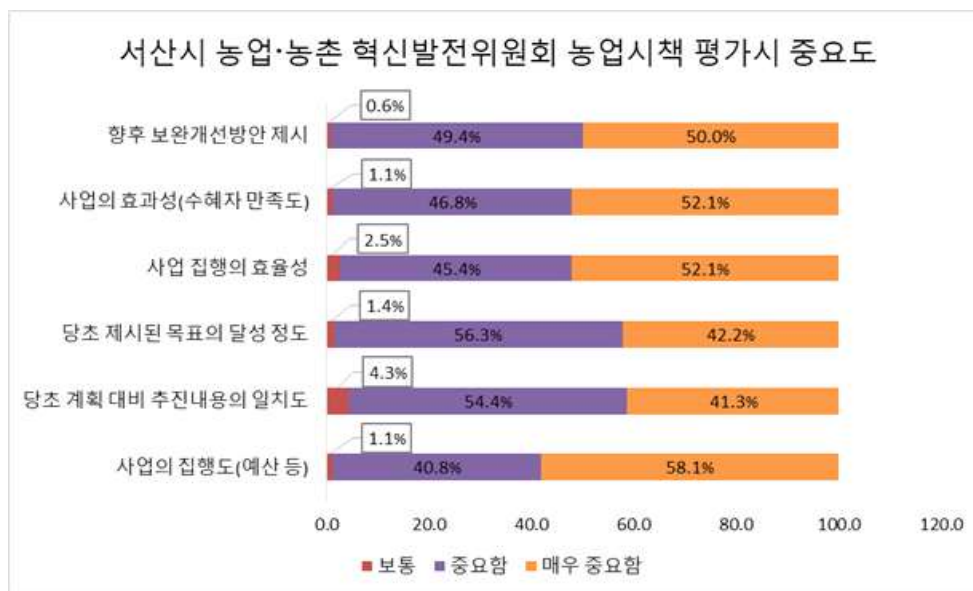
[그림 24]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농업시책 평가 시 참여 계층

- 서산시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시책평가 시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점수(5점 만점)에서 사업의 집행도(4.57점), 사업의 효과성(4.51점), 사업 집행의 효율성(4.50점), 향후 보완개선방안 제시(4.49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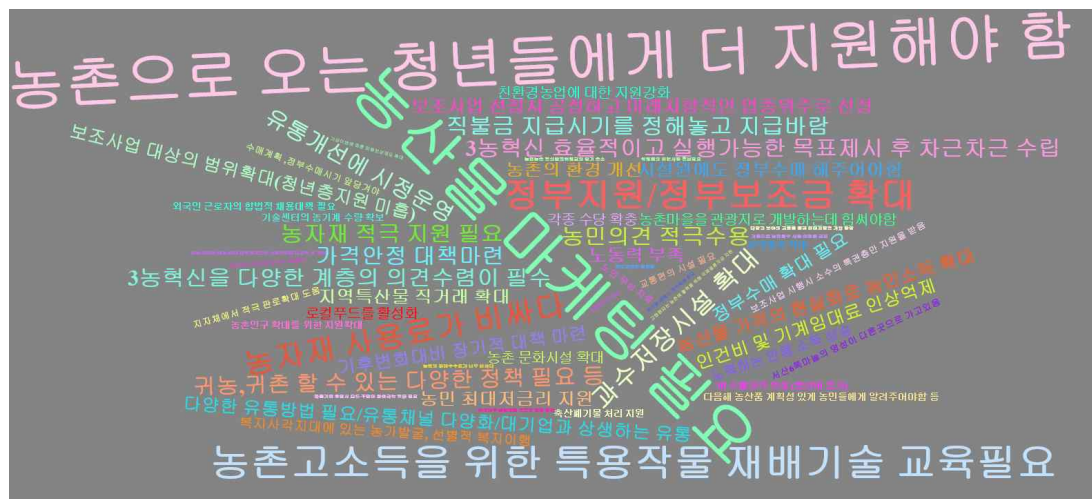
[그림 25]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농업시책 평가 시 중요도(평균점수)

-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농업시책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사업의 집행도(예산 등)’가 58.1%로 가장 높았고, ‘사업의 효과성(수혜자 만족도)’과 ‘사업 집행의 효율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비율이 52.1%로 나타났으며 ‘향후 보완개선방안 제시’ (50%) 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농업시책 평가 시 중요도

- 서산시 농업인들이 서산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자율 의견으로는 ‘농산물 마케팅의 필요성’, ‘농촌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확대’,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확대’, ‘정부지원 및 정부보조금 확대’가 주된 내용으로 나타남



[그림 27]서산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자율 의견

04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서산시의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 서산시의 농가수 및 농업인구 감소율은 지난 5년간 전국 및 충남 감소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2015년 50대 이상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는 등 향후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업 여건과 관련해서는 경지면적 가운데 논·밭의 비율이 전국(52.5%), 충남(68.3%)에 비해 현격히 높은 77.7%를 나타내고 있으며 규모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외의 작물 다양화를 통한 농가소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6년 사이 전국 및 충남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늘어 새로운 인구 유입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나 친환경농업 가운데 유기농업 실천 농가는 충남의 1.78% 수준에 그치고 있어 친환경농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서산시 농업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

- 서산시 내 농업인 630개 경영체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315개의 설문으로 농업 지원 사업 및 농촌 여건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 (농업경영) 우선 농업경영과 관련해서 농업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농산물 가격, 판로와 유통 등 농업 소득**과 관련한 부분이었으며, 농업경영과 관련한 위협요소 역시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으로 농업 소득과 연관되는 부분이었음. 한편 생활에 관한 만족도 평가로는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매우 높았고 소득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아 **농가 소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농정일반) 농정일반과 관련해서 농정분야 이슈 가운데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농산물 가격** 안

정, 기후변화, 농민수당, 직불제 개편으로 나타나 농업경영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농가 소득 향상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농업농촌 정책의 목표 역시 **안정적 소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업의 본래의 목적인 **안정적 식량 공급**과 이를 통한 **삶의 질 보장**, **농촌 공동체 유지** 순으로 나타났음.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가운데 평균 3.02점으로 중간보다는 높았고 보통(43.7%)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만족이 대체로 불만족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음. 서산시 농정 가운데 만족스러운 부분은 **복지 강화**였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소득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농업행정에서 강화해야할 분야 역시 소득 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서산시의 대외적 경쟁 대표 농산물로는 **6쪽마늘, 생강, 쌀** 순이었음

-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운영) 마지막으로 민선7기 서산형 3농 혁신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에 출범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24%에 그쳐 홍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행농업보다는 **친환경농업** 쪽이 높았고 대농보다는 **중소농**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높았으며 기존 농업인보다는 **신규/청년농업인**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응답했음.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활동**이었으며 대표기구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농업시책 평가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위원과 농업인(공모), 전문가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시책평가 기준 및 반영 항목으로는 사업의 집행도, 효과성, 효율성이 높은 비율을 보였음. 한편 서산시 농정에 관한 자율 의견으로는 농촌 유입 청년 지원 확대, 특용작물 재배 교육확대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이 제안되었음

2. 제언

● 농가 소득 지원, 무엇이 가능할까

(1) 농산물 가격 문제, 시 차원에서 풀기는 쉽지 않다

- 서산시 농업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의 농업경영과 관련해서도 농업농촌 관련 정책인 농정일반과 관련해서도 서산시 농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판로 및 유통 부문 등으로 구체화되는 ‘농가 소득’ 과 관련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않은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벼를 비롯하여 농작물의 작황이 전체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줄어든 생산량에 부합하는 농산물 가격이 설

정된 것도 아니어서 농가 소득 타격은 매우 큰 한 해였던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시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는 않는 게 현실임. 그렇기 때문에 농업 이외의 부분에서의 농가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서산형 농민수당 지원은 가능하다

- 시 차원에서 가능한 농가 소득 지원은 직접적인 소득 지원 방법인 농민수당을 서산형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가능함
- 농민수당이라 함은 농민으로서 지역의 농업을 지켜내고 농촌을 유지해나가는 것만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농가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한편, 금액과 상관없이 농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님
- 현재 충남도에서는 8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불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금 더 지불하는 곳도 있어 서산시에도 서산형 농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서산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는 금액적인 면보다 서산시가 서산시 농민들을 지역의 파수꾼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정서적인 측면의 지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3) 공동체 활성화를 시작으로 마을 단위 문제를 논의해가도록 지원하자

- 다음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농민이면서 농촌주민이기도 한 마을 구성원 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의 문제에 대해 마을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진단하며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해갈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평가 가운데 ‘지역과의 관계’ 부분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서산시의 농업농촌 지역 공동체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이러한 결과를 잘 살려 농가 소득을 포함하여 농업 인력 문제 등 지역이 가진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필요가 있음
- 세부적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농촌마을의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농업인의 고령화 되어 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역에서 농사는 누가 짓게 될 것인지, 농지 짓지 않는 땅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기 준비는 되어 있는지 등 농촌마을 단위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통해 농지 문제와 신규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의 유입에 대한 문제들을 소멸위기라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준비해 가야 할 것임

- 이러한 마을 단위의 논의 과정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서산시의 농촌마을이 가져야 할 마을 단위의 비전과 미래상을 스스로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노력은 농업 이외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며, 농업 소득으로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을 타파해가는 최선의 방안이 되어줄 것임

●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자

- 민선7기 서산형 3농 혁신 추진을 위해 작년에 야심차게 마련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그 주요 역할로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실제로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24%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세부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세부 결과, 혹은 애로사항들에 대해 서산시 마을의 정보를 공유하고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이를 총괄하여, 관련 지원을 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농민들을 포함하여 농촌 주민과의 소통 과정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자체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산형 3농 혁신을 서산시만의 사업으로 구체화하자

- 민선7기 서산형 3농 혁신 구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농업인 참여 예산 워크숍’ 개최 등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 서산시 농정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전기는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음
- 올해는 그 두 번째 해로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관련 워크숍 등이 지연되다가 결국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구체화 작업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음
- 서산시는 2021년 시정 목표로 ‘변화와 혁신으로 새 시대 도약’을 내걸고 있으며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내세우고 있음. 이에 대한 추진 기반으로는 3대 혁신으로 ‘자치 혁신’, ‘행정 혁신’, ‘시장 혁신’을 세우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두고 있고 있음

- 농정 부문에서는 목표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으로 내걸고 있으나 주요 업무 가운데는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편,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부분이 전무하여 아쉬움이 남음. 한편 전반적으로 서산시 시정에서 내걸고 있는 ‘변화와 혁신’이 연계되지 않는 못하는 한계를 지님
- 그런 가운데서도 농업인 복지 시책 가운데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와 같은 서산 시민의 혁신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편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야말로 중앙정부 그리고 충청남도의 농정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될 수 있음
- 서산시 농정 목표인 ‘농가소득 보전’은 이번 서산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난 공통의 최우선 과제임은 확실하였으나, 기존의 중앙정부 사업으로는 전국의 농민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농가소득 향상의 해결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서산시 역시 이러한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만으로는 서산시 농정 목표 실현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가진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총괄적이고도 장기적인 긴 시야를 바탕으로 둔 농정 지원 사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농정 분야에서도 농민을 포함하는 농촌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서산시민의 서산형 3농혁신 구체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